

르포 소값 폭락에 울상... 나주 반남면 흥덕리 농장



치솟는 사료값과 젖소 송아지값 폭락으로 낙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나주시 반남면의 농장에서 박일문씨가 젖소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있다.

젖소 숫송아지 10만원 축사엔 슬픈 워낭소리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젖소 송아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애써 키운 송아지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주에서 20여년간 젖소를 키워온 박일문(45·나주시 반남면 흥덕리)씨는 축사에 있는 송아지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2년 전만 해도 50~60만원에 거래되던 숫송아지값이 최근에는 10만원 아래로 ‘곤두박질’ 한 탓이다.

나해 6월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소비자들의 육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송아지값 폭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박씨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총 1천700여만원.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원유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사료값과 대출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게 박씨의 하소연이다.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를 키우는 낙농가의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아예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의 낙농가는 1년 전인 2007년 말(473곳)에 비해 8.5%(40곳) 가량 줄었다. 사료값 급등과 소값 폭락의 여파로 지역 내 농가 10곳 중 1곳은 소 사육을 접은 셈이다.

사료값 천정부지 “키워봐야 손해” 빨간 낙농인들 소 사육 포기 속출

박씨는 “사료값 폭등과 송아지값 하락이 겹치면 바람에 키웠던 송아지 손해를 커진다”며 “영세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라도 ‘송아지값 안정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는 박씨 등 낙농가에겐 유난히 건디기 힘든 한 해였다. 2007년에 포대당 8천원 하던 사료값이 지난 해 10월 1만5천원으로 두 배나 뛰는 사이 송아지값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

박씨는 “한 달 사료값만 1천500만원이 들고 진료비(30만원), 왕겨값(100만원), 대출이자(40만원) 등을 빼면 실제 소득은 전혀 없다”며 “하루하루 늘어가는 빚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했다. 박씨는 또 “사료값이 치솟기 전에는 한 달에 평균 400~5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며 “우유공급가격이 지난해 10월에 8당 120원이 올랐지만 사료값이 급등한 탓에 벌

김용철 전남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지역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사료값 상승과 송아지값 폭락 등의 이유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송아지값이 폭락했을 때 손실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송아지값 안정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낙농인들은 ‘사료값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해 농가의 손실을 일정부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가의 이팔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 58% ‘아는 사람’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대학교병원 아동성폭력 상담기관인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아

동 성폭력 피해 사례 186건 가운데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29건(58%)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41건(18%)보다 훨씬 많았다. 아는 사람 가운데 동급생, 이웃, 친인척이 각각 27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후배 26건(20%), 교사 6건(5%)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성

인이 48건(36%)이었으며, 만 14세 미만도 46건(3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추행이 128건(69%), 강간 31건(17%) 등이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은 만 7~13세 111명(60%), 만 7세 이하가 37명(20%)으로 나타났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추월산 제1등산로 암반 붕괴 잠정폐쇄

추월산 광장~보리암

전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담양군의 추월산(해발 734m) 제1등산로(추월산 광장~보리암 방향)가 암반 붕괴로 잠정 폐쇄됐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추월산 광장에서 600m 떨어진 제1등산로에 있던 높이 4m, 무게 25t의 암반이 붕괴됐다. 군은 이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1등산로를 폐쇄하고 ‘제2등산로로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월산 광장과 보리암, 정상 등 곳곳에 부착했다. 하지만 사고지점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겨우내 얼어 있던 지반이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약해져 암반이 붕괴된 것 같다”며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 붕괴 지역을 시급히 보수하고 나서 등산로를 다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암반 붕괴로 폐쇄된 추월산 제1등산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진압 경찰관 폭행 시위대원 무죄

광주지법 형사1부

경찰이 상경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에 항의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8일 경찰의 상경집회 제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사원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위법한 상경 제지에 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며 “이는 경찰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폭력을 용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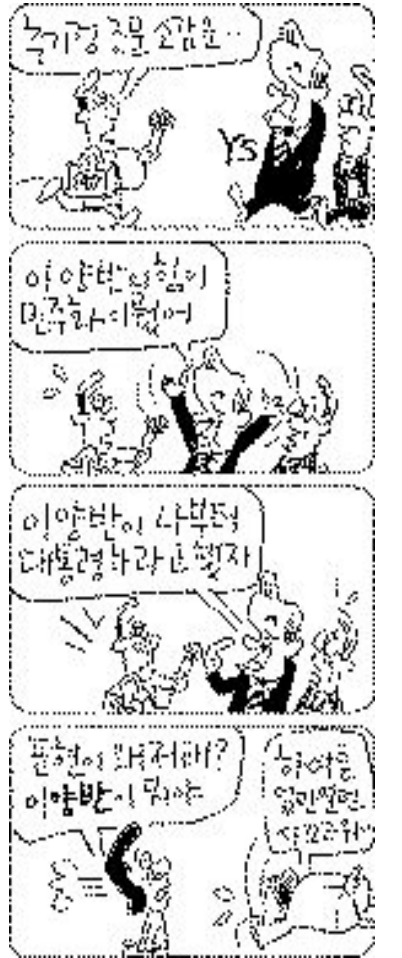
김씨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광주 시 서구 유촌동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을 향해 PVC 의외트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프집 위장해 보도방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호프집으로 위장된 숙점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업 업주 이모(43)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압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한 달여 동안 여성 3명을 고용해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나원침 (7732) 김장두



석회더미 매몰 20대 숨져

18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쓰레기처리 공장에서 직원 강모(26)씨가 석회 더미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씨는 석회를 제조하는 통 안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 위쪽에 쌓여 있던 석회 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고 공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중학생 협박 8만원 빼앗다 경찰서형

○보호관찰 중 인 10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려던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서형. ○광주 동부경찰은 18일 중학생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M센터가 업주 장모(27)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 M센터가 사무실에 차를 대여하려 온 광주 모 중학교 3년 대모(16)군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 ○장씨는 박군이 지갑에서 보호관찰 카드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꺼내는 것을 보고 “보호관찰 중에 죄를 지으면 바로 구속”이라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데, 경찰에서 “박군과 승강이하느라 되레 손발이 뚱뚱”이라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Advertisement for Dongbu Gosihakwon (동부고시학원) featuring '공무원의 꿈' (Dream of Public Servant) and '2008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2008 Jeollanam-do Local Government Senior Pass). Includes contact info: (062) 233-0509.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xion Korea) with a table of job openings and salaries across various departments like '근린시설', '주먹',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